국내 언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스톤의 정신에서 우리는 반성한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마이라 맥피어슨 지음

적잖이 불편했다. ‘한국 대다수의 언론이 편한 자를 더 편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 편안을 추구하는 길을 택했다’는 강인규 펜실베니아주립대 언론학 교수의 추천사부터 그랬다

‘언론이 지금까지 심심풀이 땅콩이 되기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고 싶다면, 언론인이 요즘처럼 간신이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보라’는 미국 USC 저널리즘 스쿨 마틴 카플란 교수의 언론에 대한 격한 평을 읽을 때는 거북스럽기도 했다.

“시대가 다르지 않느냐”는 동료의 말을 위안삼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도 썩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는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의혹 등으로 “과연 기성 언론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라는 불편한 비판이 적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일까. 888쪽의 두꺼우면서도, 빽빽한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All Governments Lie)는 “젊은 기자들의 필독서!”, “모든 기자들이 책상머리에 붙여놓고 음미해야 할 명언”이라고 하는 추천사에도 불구, 읽는 내내 불편함을 감수해야했다.

책은 우리에겐 다소 낯선 미국 언론인 이사도어 파인슈타인 스톤(Isador Feinstein Stone· 1907~ 1989)을 다룬 평전으로, 4쪽짜리 주간신문으로 미국 사회를 뒤흔들면서 ‘진보언론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스톤의 삶을 조명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정치부 기자 출신 작가 마이라 맥피어슨이 지난 2006년 발표한 책을 번역한 것으로, 권언유착에 맞서 저널리스트의 참모습을 보여준 스톤의 삶을 다뤘다.

‘이지(Izzy)’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스톤은 주류언론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1953년 4쪽짜리 1인 독립신문 ‘I.F. 스톤 위클리’를 창간했다. 현재 그의 명성도 ‘스톤 위클리’의 활약상에 힘입었다.

당시 스톤 위클리는 광고 없이 구독료로만 버텼다. 취재·집필·편집·발행·배포도 스톤 혼자 도맡았다. 광고도 일절 싣지 않은 채 구독료만으로 버티며 매주 4쪽짜리 신문을 펴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이 신문의 자랑이었고, 창간 당시 5000명에 불과했던 구독자는 폐간을 앞둔 상황에서는 7만부까지 발행할 정도로 높은 구독률을 보였다.

미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비판도 남달랐다. 1971년 폐간될 때까지 대다수 언론이 침묵할 때 미국의 냉전정책을 비판하고 베트남전 참전 반대운동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통킹만 사건 특종 보도는 특히 유명하다.

지난 1964년 8월 미국 정부는 베트남 통킹만에서 미 군함이 북베트남의 어뢰정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발표하면서 베트남전 확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정부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보도했다. 반면, 스톤은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고 강조해온 것처럼 정부 발표를 꼼꼼히 살펴 조목조목 의문점을 제기하고 정부의 발표가 날조라고 주장했다. ‘통킹만 사건의 조작 가능성’ 이후 7년 뒤인 1971년 국방부 기밀문서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이 주장은 공식 확인됐다.

그의 취재 스타일도 눈여겨볼만 하다. 그는 “정부가 사실을 조작해 비공개 기자 브리핑에서 그럴싸한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공식문건까지 새빨간 거짓말로 도배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공식문건을 읽어라”고 조언한다. 또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며 모든 발표를 뒤집어 살펴보는 스타일도 주목할만 하다. 이 말은 그가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당부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학생들 앞에서 기자란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언론인이 되고자 한다면 딱 세마디만 기억하고 있어도 너끈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미국 정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모든 정부가 그렇다는 것이지요”라고 했다.

저명 역사학자 하워드 진도 이 말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권력자들이란 권력을 이어가는 일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과 같은 평범한 시민은 공적 권력을 쥔 그들의 말을 의심하고 회의할 권리가 있다는 것 말이다”고 썼다.

‘지금 국내 언론은 어디에 있는가.’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독자들, 생기지 않을까.

〈문학동네·3만6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상상이 만들어낸 유토피아, 실제가 되다

‘유토피아의 탄생’

주강현 지음

제주도 뱃사공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설의 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어도가 20세기에 만들어진 역사라면 어떻게 되는걸까.

제주대 석좌교수이면서 민속학자, 해양문명사가인 주강현씨의 ‘유토피아의 탄생’은 구전으로 전해온 이어도와 관련한 설화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소코트라 락’(Socotra Rock)으로 표기되던 마라도 남서쪽 152km에 있는 암초가 ‘파랑도’를 거쳐 ‘이어도’로 이름 지어지면서 상상속의 섬이 실제의 섬으로 바뀌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섬-이상향/이어도의 심성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제주 무가(巫歌)는 물론 제주 속담사전조차 이어도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근래 작품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1929년부터 1935년까지 한국의 민요를 조사한 일본인 다카하시 도루(高橋亨)가 제주민요에서 채록한 후렴구 중 ‘이어도사나’ 등에서 이어도를 즉자적으로 ‘이어도(島)’로 설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한 일본인의 ‘해석’이었을 뿐인 표현을, 이후 학자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논문에 가져다 쓰고 그 논문이 신화가 돼 고정관념으로 귀착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저자는 그러나 이어도 진실 게임보다 중요한 점은 해도에 존재하지 않는 이어도를 자신들의 심성지도에 등재한 ‘제주도민의 망탈리테(심성구조)’에 의미를 부여했다. 역사적 소외를 겪고 정치인들의 유배지 등으로 인식되는 등 오랫동안 핍박받아온 제주도민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이어도-이상향’ 담론을 증폭하고 확대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돌베개·1만3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스파크고 섬광이고 우연이었던 만남들

‘만 남’

밀란 쿤데라 지음

영국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바라보는 건 불편하다. 그렇다고 화폭 안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자리한 인간의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다.

체코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베이컨의 초상화들에 대해 ‘화가의 시선이 난폭한 손처럼 놓여 있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난폭한 몸짓, 타인의 내면과 배후에 숨겨진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타인의 얼굴을 마구 구기는 이런 손의 움직임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밀란 쿤데라의 새로운 에세이집인 ‘만남’은 베이컨을 비롯, 그의 영혼을 흔들었던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다. ‘스파크고 섬광이고, 우연이었던’ 만남들은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다. 자신의 첫사랑이었다고 고백한 체코의 작곡가 야나체크. 그는 ‘무엇을 통해 내 고국이 내 미학적 유전자에 영속적으로 각인되었는지 묻는다면, 주저 없이 야나체크의 음악’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소설 예술의 극치인 동시에 소설의 시대에 보내는 작별 인사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한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등 동료 소설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화 100주년 탄생에 맞춰 영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전한다.

〈민음사·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 새로운 접근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

박이문 외 지음

‘융합’이 사회 전반의 키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아이폰’의 성공이나 영화 ‘아바타’의 흥행은 활발한 융합 기술의 성과물이나 다름 아니다.

과학에서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인문학과 과학기술, 예술과 공학처럼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도 절실하다.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는 국내외 인문학자 24명의 과학기술 체험기를 담은 책으로, 각 분야 간 융합 흐름을 소개한 ‘지식의 대융합’(2008), 과학자들의 인문학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기술의 대융합’(2010)에 이은 세번째다. 강계두 광주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김광웅 서울대명예교수, 박이문 포항공대 명예교수, 복거일 소설가, 조군호 역삼동성당 주임신부,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등 문학·어학·철학·경제학·행정학 등을 전공으로 한 24명의 인문학자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바탕으로 공학 및 과학기술을 응용하는가 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과학기술 발전 정책 수립 등 과학기술과의 만남을 풀어놓는다.

관심 분야가 다양한 만큼 융합 시도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석영중 고려대 노어노문과 교수는 뇌과학에 관심을 갖고 문학과 뇌의 관계를 탐구하고, 강계두 부시장은 과학기술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이종 분야 간 융합을 이야기한다.

〈고즈윈·1만48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마약시장 장악… 목숨 건 작전

‘쓰리 세컨즈 1·2’

안데슈 루슬룬드 외 지음

‘밀레니엄 시리즈’와 함께 스웨덴 범죄 스릴러 문학을 대표하는 ‘그렌스 형사 시리즈’ 중 다섯번째 작품인 ‘쓰리 세컨즈 1·2’가 나왔다.

‘그렌스 형사 시리즈’는 전과자 출신으로 젊은 출소자를 돕는 단체를 운영중인 버리에 헬스트럼과 스웨덴 공영 방송 기자로 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안데슈 루슬룬드가 공동집필하는 범죄 스릴러물이다.

‘쓰리 세컨즈’의 주인공은 마약조직의 일원이자 스웨덴 경찰에 고용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비밀 정보원 호프만. 조직으로부터 교도소에 들어가 마약시장을 장악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는 경찰과 비밀 공조로 목숨을 건 작전을 펼치기로 결심한다.

〈검은숲·1만1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감응·비판·모색… 후쿠시마를 말하다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박노해 외 지음

후쿠시마 원전 사태 1주기를 맞아 한국과 일본, 미국, 아일랜드 등 전 세계 지성들의 글을 한 데 묶은 책이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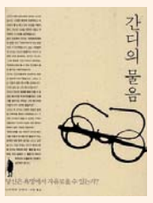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은 ‘감응하는 후쿠시마’, ‘비판하는 후쿠시마’, ‘모색하는 후쿠시마’ 등 세가지 섹션으로 나눠 15명의 필자가 시, 편지글, 에세이, 평론, 논문으로 후쿠시마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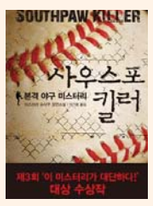
박노해의 시 ‘봄비 내리는 아침에’, 광주와 서울에서 놀이패 신명과 텐트연극 ‘들불’을 공연하는 사쿠라 다이조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미국 시인 앤 월드먼의 에세이 ‘은폐의 메커니즘 속의 색깔들에 대한 소개’ 등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글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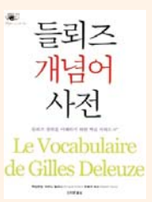
〈갈무리·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역사를 바꾼 총 AK47=아프리카 전문 기자로 40년 경력의 저널리스트인 마쓰모토 진이치가 통제받지 않은 무기에 상처받은 아프리카를 그려낸 르포 에세이. 지독한 내전을 겪은 후 무정부 상태로 방치된 소말리아를 직접 찾아 무장한 경호원이 있으면 돌아다닐 수조차 없는 비참한 현실을 담아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총’이 아니라 ‘법과 질서’라고 강조한다. 〈민음인·1만3000원〉

▲사우스포 킬러=야구를 소재로 쓴 일본 미스터리 소설. 인기 프로야구 구단에서 좌투수로 활약하던 주인공 ‘사와무라 와타루’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2군으로 강등되면서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담았다. 2005년 일본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대상을 수상했다. 〈포레·1만2000원〉

▲맹자, 사람의 길 上=도올 김용옥이 ‘맹자’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쉽게 풀어놓은 책으로, 이번 책으로 이미 출간된 ‘논어’, ‘대학’, ‘중용’의 한글역주와 함께 사서(四書)를 완역하게 됐다. 저자는 “인류역사에서 순결한 도덕주의, 진정한 인문주의는 모두 맹자에 근원하고 있다”면서 “21세기 도덕의 회복을 외친다면 누구든지 ‘맹자’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맹자, 사람의 길’은 4월 말에 하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통나무·1만5000원〉

▲간디의 물음=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 인종차별주의에 고통받는 인도의 민족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마하트마 간디의 사상을 정리한 책. 저자 나카지마 다케시는 “비폭력은 폭력보다 훨씬 더 적극적”,“비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침묵”이라고 밝힌 간디의 사상과 삶을 통해 근대주의의 오만을 지적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영사· 1만2000원〉

▲들뢰즈 개념어 사전=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사상을 21명의 철학자가 87개의 핵심 키워드로 정리했다. 개념어에 대한 정리를 비롯해 등장한 연대기를 설명하고 각 전문가들이 비평을 추가해 독자들에게 유의해야 할 점과 쟁점들도 제시해준다. 단순한 ‘단어 찾기’가 아닌, 철학적 사유를 시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갈무리·3만5000원〉

▲나는 왜 일하는가=‘나는 왜 일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자기 경영 비법을 알려준다. ‘왜 나는 내 일에 만족하지 못할까’, ‘도대체 나란 사람은 누구일까’, ‘어떻게 해야 일상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한 해법을 세기의 석학들과 우리 시대의 현자들이 제시한다.

〈인라잇먼트·1만5000원〉

어린이 책꽂이

▲마더 테레사 아줌마네 동물병원=마더 테레사 수녀가 동물병원 원장으로 변신했다. 기르던 강아지마저 게임 아이템 다루듯 아무 거리낌없이 내버리던 게임 중독 대철이가 테레사 아줌마를 알게 되고 아줌마와 함께 다친 동물들을 치료하고 유기견을 구하는 일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 배려하고 나누는 삶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된다. 〈주니어김영사·9500원〉

▲지혜의 섬=‘모험으로 터득하는 52가지 미덕’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와 간단한 사례를 들어 자연스럽게 미덕을 익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열정·관용·용서·정의·협동 등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가치 개념들을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 입장에서 풀었다. 〈토토북·1만원〉

▲놀자!=박정섭씨가 ‘도둑을 잡아라’ 이후 온몸으로 뛰어놀고 싶은 모든 어린이 열망을 담아 내놓은 그림책. 의자에 앉은 아이 실루엣 같은 노란 형태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로 펼쳐지면서 다양한 상상 놀이가 전개된다.

〈책읽는 곰·1만500원〉

▲고양이 피터 세트=파란색 고양이 피터를 통해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난 좋아 내 하얀 운동화’의 경우 마음에 쏙 드는 하얀 운동화가 빨간 딸기 더미, 블루베리 더미, 진흙 웅덩이에 빠지면서 때로는 빨갛게, 때로는 갈색으로 변하지만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피터의 상황을 묘사한다.

〈상상의힘·1만1000원〉

▲세상을 바꾼 학교=초등학교 창시자인 페스탈로찌를 다룬 책으로, 인류가 되새기고 간직해야 할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 내는 ‘인물이야기’ 시리즈물.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온 몸을 바친 교육자의 삶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양철북·1만2000원〉